

인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 속 ‘동남아 현상’*

김 홍 구**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동남아 사람이 등장하거나 동남아 음식과 풍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흔해졌고, 일상생활에서도 동남아 사람을 접촉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동남아 문화에 대한 상상과 담론이 형성되고 특정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사람들 사이에 소통되고 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00여 만 명 중에 동남아 출신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주노동이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과 계기를 통해 한국에서 살고 있거나 한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역으로 투자나 무역, 관광 등을 위해 동남아에 방문하거나 동남아에 이주하는 한국인도 증가해왔으며, 이미 ‘한류’현상으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인에 의해 제조된 상품과 문화가 동남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우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KRF-2008-323-B00029). 또한 이 논문은 한국 속 ‘동남아 현상’ 1년차 공동 연구과제 총 7편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리뷰논문의 성격을 띠고 있음도 밝혀둔다. 이 논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히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리가 동남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동남아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이자 투자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훌륭한 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안락한 노후를 보내거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기회의 땅으로서, 그리고 심지어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동남아와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면모들이 하나의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사회현상을 범주화하여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이라고 이름붙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말해, 한국에서 경험되고 인식되는 동남아와 관련된 일체의 현상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부연하면 ‘동남아 현상’은 한국 속으로 동남아 사람과 문화의 직접적인 유입에 따라 한국사회에 생겨난 현상이며, 한편으로는 한국인이 동남아로 이동하거나 상호 접촉에 따라 형성된 동남아에 대한 인식에 의해 생겨난 현상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남아 현상’이라는 개념적인 우산에 포괄되는 구체적인 주제들은 이주노동, 중소기업투자, 유학, 은퇴이주 등 네 개의 항목이다. 이주노동과 중소기업투자 등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거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유학과 은퇴이주는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서 소통되기 시작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한-동남아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생각되어 이 연구의 하위주체에 포함하였다. 이들 네 가지 주제들은 내용측면에서 모두 인간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

1) 인간의 이동이라고 한 분류는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 2008년도 기초연구과제

한편으로 이 주제들은 동남아적 요소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차별화 된다. 이주노동은 동남아 사람과 문화의 직접적인 유입에 따라 한국사회에 생겨난 '동남아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에 중소기업 투자와 은퇴이주는 한국인이 동남아로 이동하거나, 상호 접촉에 따라 형성된 동남아에 대한 인식에 의해 생겨난 '동남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은 한국과 동남아 사회에 동시에 나타나는 '동남아 현상'이다. 한국으로 유학 오는 동남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으로, 동남아를 '보다 나은 교육현장'으로 인식하고 동남아를 향해 가는 한국인의 이동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속 '동남아 현상' 연구는 양적, 질적 불균형을 이뤄왔다. 양적인 면에서 보면, 이주노동, 중소기업투자와 관련된 연구는 동남아 국가별로 분류하여도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동남아의 은퇴이주나 유학의 경우, 관련된 연구가 일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희소하거나 찾아보기 힘들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관심이나 접근시각의 측면에서도 기존연구의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동남아 내부의 근원과 경로에 초점을 두어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을 다루고자 하는 취지의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일부의 연구가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의 동남아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다. 당연히 '동남아 현상'이라는 개념을 키워드로 사용한 연구도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의 대표적인 하위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에 관한 기존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이주노동을 목적으로 동남

2년차 주제인 문화의 이동(국제결혼, 관광, 대중문화, 음식)과 구별하기 위한 분류이기도 하다. 인간의 이동 4가지 주제 중 중소기업투자는 자본과 인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2년차 주제인 문화의 이동과 차별성을 고려해 인간의 이동 범주에 넣었다.

아 출신 이주자가 꾸준히 한국에 수용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였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주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주의 선택과 과정에 영향을 미친 동남아 내부의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관심은 주변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그간 이주노동의 증가 원인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도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이주의 국내 경제적 효과나 영향, 혹은 이주노동자의 적응과 갈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박배균 2004; 설동훈 1996, 1999, 2000; 이수자 2004; 한국노동재단 2005, 권기철 외). 외국 학계에서도 동남아 노동자의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통계 자료와 정책문서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에 기초한 연구들(Abella 2003; Dang Nguyen Anh 2000, 2008)이 발표되었으나 동남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주과정에 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는 희소하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연구와 분명히 차별화 된다. 이 글의 목적은 인간의 이동으로 범주화한 네 가지 주제인 이주노동, 중소기업투자, 유학, 은퇴이주라는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을 동남아 내부의 맥락에서 그 근원과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위해서 몇 개 대상국가가 선정될 것이며 각 주제별로 이러한 국가 사이의 비교도 시도해 볼 것이다.

II. 분석틀

이 글의 분석대상인 이주노동, 중소기업투자, 은퇴이주, 유학 등 ‘동남아 현상’의 근원과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제노동력이동이론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이론은 한국 속 ‘동남아 현

상'의 대표적인 하위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틀이다.

국제노동력이동이론의 분석틀은 주로 노동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나 중소기업투자, 은퇴이주, 유학 등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도 결국은 인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일 뿐 아니라 공통적인 발생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이동을 포함한 이들 현상들은 모두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물질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며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물질의 교역은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문화의 교류를 가져 왔고, 자연히 인구 역시 저개발국 및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끊임 없이 흐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사회주의 소련 및 동구권 몰락을 초래했으며, 1990년대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경제로의 변화를 초래했다. 자본주의로의 세계경제의 강화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불가피 하게 했다. 즉 자본, 노동, 기술 등과 같은 생산요소가 국경이라는 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의 국제화에 의해 투자국과 투자수입국 사이의 무역이 급속하게 진전돼 국가 사이에 상호 직접투자가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한 직접투자의 상호관련은 세계규모로 묶여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화는 상품 및 기술의 교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가 만나고 항상 접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과 기술의 교류를 넘어 사람의 교류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글로벌화가 만든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권기철 외 2005: 42-43).

국제노동력이동이론들에 대한 제 성과들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이론과 구조를 강조하는 구조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행위이론인 배출-유인이론은 개인 행위자가 자기 나라에 남아

있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취업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를 국제노동력이동으로 정의하고, 그 이동 행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열거하며, 그것들을 배출요인과 유인요인 및 매개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Lee 1966; Rogers 1967; Jansen 1970). 이런 시각에 따르면 소득격차, 고용기회의 희소, 인구의 급증, 송금, 기술습득 등의 배출요인에 의해서 인력송출이 발생하고,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 3D 기피현상의 심화, 근로의욕 감퇴 등의 유인원인에 의해 인력유입이 일어나게 된다. 송출국과 유입국간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 등은 매개요인이 되며 개인의 욕망이 노동력 이동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배출-유인이론의 대부분의 시각들은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대표적 구조이론인 세계체제이론은 국제노동력이동이 중심부 자본의 주변부 사회에 대한 시장침투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노동력 이동이란 자본주의의 확대로 어느 국가가 세계경제 속으로 편입된 후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때 주변부 국가의 저임 노동력이 중심부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전 세계적 자본축적과정이 한편으로는 주변부에서 전통적 생산양식을 파괴하고 산업예비군을 창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부에서 자본주의 발전과 팽창, 노동력 부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설동훈 1999; 44).²⁾

세계체제이론에서는 노동력 유입국과 송출국간의 사회적 연결구조를 강조한다. 즉 노동력 유입국 사회가 상대방에 상품, 자본, 문화를 수출하면 ‘시장의 국제화’ 내지는 ‘전 지구화’에 의해 두 나라 사이에는 물질적 연결과 문화 이데올로기적 연결이 만들어져 국제노동력이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결구조를 형성하

2) 사센은 노동력 유입국의 국제분업에서의 위치와 공업화 수준을 기준으로, 국제노동력 이동의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Sassen 1988: 28-31).

는 메커니즘은 여러 방향에서 찾을 수 있는 데 해외투자, 무역, 인적 교류, 해외이민, 해외 식민지 경영 등의 역사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설동훈 1999: 155).³⁾

위의 물질적, 문화 이데올로기적 연결이외에 국제노동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제도와 정책 및 국제노동력 이동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인식 등도 들 수 있다.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각 국의 송출, 수용정책에 따라 형성되는 제도와 기구에도 규모와 방향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며, 이동지 사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인식은 노동력 이동에 커다란 심리적 요인을 구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배출-유인이론과 세계체제이론은 현상분석의 각기 다른 측면을 분석하는데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의 근원과 경로를 아래와 같이 구조적인 요인과 배출-유인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세계체제이론을 이용해 '동남아현상'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위 세계체제이론의 변수들 중 네 가지 주제 분석에 적합한 변수-역사적 요인, 해외투자·무역, 인적교류, 긍정적 사회인식을 구조적 요인으로 삼기로 한다. 동남아는 한국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요인은 상수로 간주해 배제한다. 4)

둘째, 배출-유인이론을 이용해 '동남아현상'의 보다 구체적인 근원과 경로를 동남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이 글의 배출-유

3) 예를 들어 해외 투자 규모가 클수록,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할수록, 과거 식민지였던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설동훈 1999: 155). Sassen(1991, 1998), Castles and Miller(1993) 을 참조.

4)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에서 5-6시간 거리에 위치한다. 동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물리적 거리가 가장 짧은 곳에 위치한 곳이 동남아 지역이다. 이는 양 지역 국민들이 물리적 거리감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쉽게 왕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인이론 변수는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나누기로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배출-유인이론의 일반적인 시각들은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데 국제노동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제도와 정책을 포함해 정책적 요인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요인분석은 한국 속 ‘동남아 현상’에 대한 보다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동남아 현상의 구조적 요인

이 장에서는 한국 속 ‘동남아현상’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은 한국 속 ‘동남아현상’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지만 구조적 요인들은 동남아 현상의 직접적 원인 이라기보다는 그 현상의 출현을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구조의 역할을 하거나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1. 역사적 요인

문헌 기록상 최초의 한국(한반도)과 동남아 국가의 관계는 13세기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역에 있던 리(Li), 마자빠히트(Majapahit), 아유타야(Ayutthaya) 왕조들과 한반도의 고려, 조선 왕조 간에 공식적은 아니지만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헌에 의해 입증된다(조홍국 2004).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도 양자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전선에서 연합군에 포로로 잡히기도 했다. 6.25는 또 다른 인연의 계기

가 되고 있다. 1949년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가 이루어졌고 한국전쟁 중에 태국이 파병을 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된 이후 한국과 동남아 관계는 새로운 환경을 맞는다. 냉전적 대립 속에서 한국과 동남아는 각기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 공통으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자유진영으로 묶이게 되었다(이재현 2009: 2-3).

이 글의 분석 대상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 중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3개국은 한국과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⁵⁾

2009년 현재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동남아 국가 중 가장 오랫동안 수교를 맺고 있음) 필리핀은 6.25에 참전해 한국과 혈맹관계를 맺었다. 필리핀은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한 후 16 개국 UN군의 일원으로 자국의 군대를 파병했다(연 인원 7,148명, 사망 112명, 부상 299명). 또 전후 참전 용사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필리핀의 라모스 전 대통령은 참전용사 출신이며 전쟁 중 북한군에 피격당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아시아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던 아키노 대통령의 남편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의원은 중군 기자로 참가했고, 카를로스 로몰로 전 외무장관은 파병을 주도했던 인물이다(경향신문 2009/03/16). 한국전은 양측의 각별한 역사적 유대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

한국전 이후 냉전체제 기간 중 양측은 미국과 밀접한 군사동맹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외교·안보적 보조를 맞추어 나갔으며 특

5)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5개국인데 이 중 인도네시아의 자바 왕국(마자빠히)은 14세기말과 15세기 초 사이 조선과 교류가 있었으나 그 의미는 단순히 문화접촉 수준에서 끝났으며 이후 양국 사이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접촉은 없었다(조흥국 2004: 142-168).

6) 한국전으로 인한 양국의 인연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다. 필리핀과 한국에는 각각 필리핀 군인들의 한국전 참전비가 세워져 있다. 1995년 발행된 500페소(peso) 뒷면에는 필리핀 군인들과 한국 여성이 필리핀 군인에게 화환을 전해주고 그 옆에는 한국 남자 어린이가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같이 남 베트남에 지상군을 파병하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로부터의 공동의 위협은 양국의 정치, 군사적 관계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양국 권위주의 정권과 국민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공고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나라와의 수교현황을 살펴보면 필리핀은 1949년 3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수교해 2009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했다. 북한과의 수교는 훨씬 뒤인 2000년 7월에나 이루어졌다.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늦게 북한과 수교를 한 필리핀은 아직까지 북한 상주 공관을 두지 않고 주 북경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으며, 북한은 주 태국 대사관이 필리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양 국을 역사적으로 연결 시켜주고 있는 흥미로운 사례도 적지 않다. 1963년 설립된 ‘한국 스포츠의 산실’인 돔(dome)식의 장충체육관은 45년 전 필리핀의 기술로 건립됐다. 이에 앞서 1962년 10월, 지금은 문화관광부와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쌍둥이 빌딩이 세워졌고 이 역시 필리핀 기술진에 의해 설계·감리되었다(국민일보 2008/02/03). 과거에 필리핀 항일투사이자 대통령이었던 라몬 막사이사이를 기념해 제정한 ‘막사이사이 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꼽힐 정도였다. 장준하·장기려·이태영 등 수많은 이들이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이사이상을 탔다(경향신문 2009/03/16).

다음으로 베트남을 살펴보면 양국은 옛날부터 꽤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첫 교류는 고려시대에 리룡명(李龍祥, 이용상) 베트남 왕자의 귀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산 이씨의 시조인 리룡명은 1226년 변란을 피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와 황해도 웅진군 화산(花山)에 정착하였다. 2000년 경제기획원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에 살고 있는 화산 이씨는 1350여명이다. 화산 이씨 외에도 리즈영꾼(이양훈, 李陽焜)을 시조로 하는 강원도 정선 이씨 역시 베트남 귀화인이다. 고려 명종(1170~1197) 때 정중부의 난을 도와 경대승이 죽은 후 무신 최고 집권자가 된 이의민

이 리즈영권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있다(조흥국 2004: 76-106).

한국인이 쓴 책이 베트남에 전해지기도 했다. 13~14세기경에 '명심보감(明心寶鑑)'이 베트남에 전래돼 '밍뎐바오지암(Minh Tam Bao Giam)'이라는 현지 한자발음으로 번역돼 베트남 유학자들 사이에 읽혔다. 조선과 베트남의 학자들이 중국에서 만나 필담으로 교류한 사례도 있다.

1598년 조선 실학의 선구자로 추앙 받는 이수광과 후기 레 왕조의 사신 풍각관(Phung Khac Khoan, 馮克寬)은 연경에서 만남을 가진 적도 있다. 이수광은 풍각관이 명(明)나라의 신종(神宗)에게 바치는 '만수경하시집(萬壽慶賀詩集)'의 서문도 써 주었다. 조선 숙종 때 제주도민 24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 표류해 베트남의 호이 안(Hoi An, 會安) 근처에 도착했다. 제주도민은 당시 중남부 베트남 지배자였던 응웬푹뎐(Nguyen Phuc Tan)을 알현하고 응웬푹뎐과 중국상인의 도움을 받아 1686년 21명이 살아서 돌아왔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는 베트남 측의 문헌에도 자주 발견된다. 베트남의 대학자 레귀돈(Le Quy Don, 黎貴惇)이 '북사통록(Bac Su Thong Luc, 北史通錄)'에서 1760년에서 1762년 사이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조선 사신 홍계희와 만나 시를 주고받은 사실을 수록하기도 했다(조흥국 2004: 206-257; Weeklychosun 2008/01/29).⁷⁾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한자 및 유교문화권이지만 한 때는 상이한 이념적 대립관계에 놓인 적도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어지던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비화된다.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1964년부터 베트남에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1973년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 베트남을 통일한 공산정권은 베트남전 당시 교전 상대였던 대한민국과 적대적인

7)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교류에 대해서는 베트남 역사학자인 유인선(2002, 2007)과 최병욱(2001, 2008)의 연구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양국 간에는 이를 뛰어넘는 역사적, 문화적 근접성을 갖고 있다. 양국은 반복된 외세와의 전쟁, 식민지 경험, 이념전쟁, 분단과 통일, 급속한 산업화와 개방 등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 양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국 간의 전체적인 교류수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높아졌다.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요구가 거세져 1986년 말 “도이 머이”(Doi Moi) 정책을 결정하고 전면적 개혁정책을 시행했으며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했다. 그리고 이후 공업화와 현대화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산업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을 때인 1992년 12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현재 동남아 한류의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태국에 이어 1960년 2월 한국과 세 번째로 수교한 국가다. 양국의 특별한 관계는 1980년대 초 마하티르 수상이 집권 한 후부터 맺어지기 시작했다. 마하티르 수상은 말레이시아 경제발전 모델의 선정에 있어서 서구식 모델 대신 한국과 일본의 발전 모델의 수용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공 사례를 통해 근대화가 반드시 서구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진 마하티르에게 있어서 근검절약, 희생정신 등 고유의 문화적 전통, 또는 아시아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공을 거둔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말레이시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공사례로 비쳐졌다. 이러한 마하티르의 정책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이라고 부른다. 동방정책 이후 양국의 경제관계는 급속히 확대되어 10위권 내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동방정책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983-2007)KOICA 훈련과정 초청, 유학생 초청, 중앙공무원 교육원 연수, 산업기술훈련 등 과정

에 2,574명이 참가했다. 마라공대(UiTM)한국센터 건립(98년 8월 개관)도 지원했다(이경찬 1998: 95-122).

이상에서 살펴보면 한국과 가장 밀접한 역사적 특수 관계를 갖는 나라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순이다. 이런 관계는 양 지역 간의 친근감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의 주제인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이 한국행을 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2. 경제적 요인

세계체제이론에 따르면 노동력 유입국 사회는 상대방에 상품, 자본, 문화를 수출하게 되는데 '시장의 국제화' 내지는 '전 지구화'에 의해 두 나라 사이에는 물질적 연결과 문화 이데올로기적 연결이 만들어 진다. 이런 연결구조를 형성하는 경제적 메커니즘 중 한 가지가 해외투자·무역이다. 사센(1988)에 의하면 송출국에서 인구의 해외유출의 핵심원인은 빈곤, 과잉인구, 경제정책인데, 그것만으로는 이민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 조건에 객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연계의 출현이 결합되어야 이민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국의 외국인 투자가 바로 이런 연계를 출현시킨다고 주장한다. 아시아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경제지역(NIES)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바로 그 구조의 역할을 담당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동남아 투자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시아에서는 80년대 이후 일본과 아시아 NIES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었다. 85년 엔고를 예고한 플라자 합의 후 아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전의 아시아 NIES에서 아세안과 중국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아시아 NIES는 7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었지만 자국화폐 가치의 평가절상과 평균임금 상승으로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매력을 잃었고 그 대신으로 등장한 것이 아세안제국이였다. 일본으로서는 우선 이들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야 했으며, 80년대 후반에는 국내 임금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아시아 NIES까지 해외직접투자 행렬에 나섰다(이재현 2009: 6-7).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의 대표적 NIES인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 시기는 1980년대 들어서였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 2003년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동남아 직접투자는 2008년 현재 35억불(16%)로, 동남아는 미국(23%), 중국(17%)이어 제3의 해외투자대상지역이다. 투자규모는 2005년 6억불에서 2006년 13억불로 증가한 후 2007년 30억불, 2008년 35억불로 증가해 2005-2007년 사이에 매년 2배의 증가 추세에 있다. 2003-2008년 한국의 동남아내 국가별로 누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38.7억 불), 싱가포르(18.6억불), 캄보디아(12.8억불), 인도네시아(12.2억불), 말레이시아(6.8억불)순이다(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exim.co.kr/>).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의 교역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세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전 세계 IT제품의 수요 감소기인 200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교역규모도 타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2008년 현재 아세안은 중국(22.2%)과 EU(14.0%)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지역(11.7%)이다. 교역규모의 증가 추이를 보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교역규모는 하락세에 있지만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별 교역액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247억불로 1위를 기록하고, 이어 인도네시아(193억불), 말레이시아(157억불), 태국(105억불), 베트남(98억불), 필리핀(81억불) 등의 순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위와 같이 한국과 동남아 사이의 해외투자·무역 규모와 추세의 증가는 양 지역 간 물질적인 연결구조를 형성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돼 이 글의 주제인 동남아 이주 노동자 유입과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를 순환적으로 증가시키게 되었다.

3. 교류적 요인

현재 동남아는 한국과 인적교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2007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 15위안에 동남아 국가가 7개나 포함된다. 3위 태국(685,992)을 비롯해 필리핀(5위, 445,235), 베트남(7위, 260,609), 싱가포르(8위, 105,268) 등이 15위안에 포함되고, 총 해외 출국자의 20.3%가 동남아 지역으로 출국했다(이재현 2009: 9).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남아인 관광객 수는 필리핀(2006년 248,262), 태국(128,555), 말레이시아(89,854), 싱가포르(88,386), 인도네시아(62,869), 베트남(46,077) 순이다(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2008년 6월 현재 동남아 이주노동자는 모두 136,117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다. 동남아 국가 중 이주노동자를 한국으로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총 체류자 44,526명 중 합법체류자 수는 35,281명이며, 필리핀(33,810명), 태국(30,405명), 인도네시아(21,512명) 순이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http://www.immigration.go.kr/>).

2008년 한국 사람의 동남아 유학생 수는 4,556명(전체 71,531명의

6%)인데 이들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브루나이 순이다. 한국으로 유학 온 동남아 학생들의 수는 3,578명(전체 63,952명 중 5.6%)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순이다. 한국 내 동남아 출신 유학생의 규모는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일본의 5.2%를 앞질러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의 비율을 보여준다(교육과학기술부 유학생 통계자료 2008, <http://www.mest.go.kr/>).

아세안 국가 속 한국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커뮤니티는 그 규모가 1위며, 필리핀과 태국, 싱가포르에서 2위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규모가 큰 최대 외국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다(외교통상부 2009).⁸⁾

이상과 같은 활발한 인적교류의 내용들은 이 연구의 주제들인 이주노동자, 중소기업투자, 은퇴이주, 유학 현상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4. 사회 인식적 요인

동남아 국가에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류다. 한류는 동남아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쳐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에서 한류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대략 2000년대 초부터였

8) 아세안 국가와 한국 내 양 지역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브루나이 90명(브루나이)/42명(한국), 캄보디아 5,000/6,000, 인도네시아 31,000/30,000, 라오스 450/88, 말레이시아 15,000/460, 미얀마 1,000/3,000, 필리핀 75,000/50,000, 싱가포르 13,000/300, 태국 20,000/28,000, 베트남 37,000(실제로 70,000명 추정)/76,000명이다(외교통상부 2009).

다. 이후 한류는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을 보여 왔다. 첫째는 지역적인 확대현상이다. 한류는 베트남과 싱가포르로부터 시작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산되었다. 둘째는 한류영역(장르)의 확대현상이다. 한류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에서 시작했지만 게임, 패션, 한국 음식, 미용, 한글 배우기 등 한국관련 문화 및 일반 상품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현재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삼성액정(LCD) TV, 휴대폰, LG 에어컨, 홈시어터, 에어컨, 세탁기, 미원, 현대 아반떼 등이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해 이른바 경제 한류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김홍구 2009: 6).

한국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한국정부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한국정부는 1987-2009년 3월 사이 아세안 8개국에 총 70개 사업, 15.8억불의 대외경협기금(EDCF)을 제공했다(대외 유상원조 총액의 37%). 국별 EDCF 지원내역을 보면, 베트남 6.98억불, 인도네시아 3.15억불, 캄보디아 2.19억불, 필리핀 1.73억불 순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기자재 공여, 전문인력 파견, 연수생 초청 및 개발조사 사업 등에 1991-2008년 사이에 총 3억 4,849만 불의 무상원조를 지원했다(대외 무상원조의 21.7%)(외교통상부 2009).

또한 우리 정부는 2003-2007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5개 사업에 5백만 불을 지원하고 1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IAI에 추가 5백만 불 지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협력사업(Cooperation Project)에 따라 1990-2008년간 약 3,800만 불의 특별협력기금을 제공해 교역, 투자, 관광, 기술이전, 인적자원 개발 분야 170여개 사업을 시행완료했다(외교통상부 2009).

위 결과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동남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률은 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동남아연구소 2010).⁹⁾ 그 중 몇 가지 관련조사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에 대한 긍정률(‘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캄보디아(86.0%), 라오스(75.8%), 싱가포르(70.3%), 태국(68.2%), 베트남(67.5%), 미얀마(66.4%), 말레이시아(62.0%), 브루나이(59.2%), 인도네시아(56.2%), 필리핀(53.7%)순으로 동남아 모든 국가에서 50%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 우호적인 나라이다”에 대한 긍정률은 캄보디아(92.5%), 라오스(86.5%), 인도네시아(66.4%), 베트남(58.8%), 태국(57.2%), 미얀마(56.4%), 싱가포르(55.9%), 말레이시아(50.8%), 필리핀(49.8%), 브루나이(46.6%)순이다.

“한국은 자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이다”에 대한 긍정률은 캄보디아(86.0%), 라오스(80.1%), 인도네시아(63.2%), 미얀마(49.2%), 베트남(48.3%), 말레이시아(41.8%), 싱가포르(41.5%), 태국(40.5%), 브루나이(39.4%) 순이다.

일본, 중국, 호주, 인도, 한국 5개국에 대한 호감도 비교에서 한국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1위, 태국, 베트남에서 2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서 3위를 차지했다.

한국 대중문화 선호 긍정률은 캄보디아가 가장 높고(91.0%), 라오스(75.5%), 필리핀(63.8%), 베트남(63.1%), 태국(61.8%), 미얀마(60.7%), 브루나이(50.3%), 싱가포르(49.2%), 말레이시아(47.1%), 인도네시아(40.1%)순이다.

9)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동남아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위 관련 항목의 일반적인 경향은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률이 높은 가운데서도 특히 저개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매우 높은 긍정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IV 인장이동의 범주별 근원과 경로

이 장에서는 인장이동의 범주에 속하는 이주노동, 중소기업투자, 유학, 은퇴이주 네 가지 주제가 해당 동남아 개별국가들-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어떠한 근원과 경로를 갖고 있는가를 동남아적 맥락에서의 요인-경제적, 정책적, 사회·문화적-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로 비교해 볼 것이다.

1. 중소기업 투자: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소기업투자는 동남아 사람과 문화의 직접적인 유입에 따라 한국사회에 생겨난 '동남아 현상'이 아니라 한국인이 동남아로 이동하거나, 상호 접촉에 따라 형성된 동남아에 대한 인식에 의해 생겨난 '동남아 현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 이후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2003-2008년 한국의 베트남 내 누계 투자액수는 38.7억 달러 동남아 국가 중 1위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속도가 위축돼 2008년 말 현재 베트남의 제4위 투자국으로 후퇴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투자확대추세는 경기에 따라 다소간 기복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對) 베트남 투자 초기에는 섬유, 의류, 가방, 신발 등 인건비

상승 등 한국의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자국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소규모 경공업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원단, 철강, 화학 등 소재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 공단건설 등으로 투자가 다각화되면서 투자분야의 고급화 및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1992년 시작되어 주로 봉제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 광업, 건설업,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투자금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 투자 건수나 규모 등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캄보디아의 잠재력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한 점과 원화 강세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요한 2009: 210). 한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액은 2005년 3,175만 4천불에서 2006년 1억 2,635만 5천불, 2007년 6억 2,949만 8천불에 달해 2007년은 2005년과 비교해 무려 투자액수가 20배나 증가했다(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exim.co.kr/>).

베트남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 저임금의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04년도 베트남 투자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업체(194개 업체)의 85.1%가 저임금의 우수한 노동력을 최대 투자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 신발, 가방 등 노동집약적 분야의 집중적인 베트남 투자진출이 활성화 된 점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내수시장 진출가능성도 높다. 베트남은 최근 10년간 중국다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로서 KOTRA의 2004년도 「경영실태 설문조사」에서는 11.3%가 내수

시장 진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 투자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의 내수시장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이 한국기업으로부터 투자 적격지로 각광 받는 또 다른 경제적 이유는 선진국 우회수출과 아세안국가 진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협정이 2001년도에 체결된 이후 대미 우회수출기지로 많은 베트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트남이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에 가입하면서 역내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아세안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전략으로 베트남을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도 가입했다. 이외에 베트남은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회피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베트남과 같이 캄보디아 또한 저렴한 노동력의 동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보면 캄보디아는 법정 최저 임금이 45달러이며 시간당 유효임금은 0.29달러에 불과하다(이요한 2009: 213). 캄보디아가 베트남에 이어 새로운 투자대상지로 매력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거시경제 환경이 건실하기 때문이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속으로 두 자리 수 성장(각각 10%, 13.4%, 10.4%, 10.1%)이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Asian Development Bank Outlook, 2009). 이런 현상은 베트남 경우같이 내수시장 진출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 등 기존 주요 투자대상 지역의 투자 메리트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투자대상 지역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근 국가에 비해 캄보디아의 경제적 자유도가 높다는 점도 투자유인으로 꼽힌다. 2009년도 기준으로 캄보디아의 경제적 자유도는 전 세계 179개국 중 106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 국가

42개국 중 21위를 차지한다(이요한 2009: 213).¹⁰⁾ 캄보디아의 경제적 자유도는 32위인 베트남보다 높다.

위와 같은 중소기업투자의 경제적 이유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투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이유 중 저임금 노동력, 내수시장 진출가능성, 차이나 리스크 회피와 기존 투자지역 메리트 약화 등의 요인은 양국별 차이가 없지만 경제적 자유도는 캄보디아가 베트남보다 높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베트남은 중국, 일본과 함께 유교문화권으로 우리와 정서적으로 거의 유사하며,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과정(식민지경험, 분단, 전쟁, 급속한 산업화)을 겪음으로써 양지역 간에는 친근감과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근래 들어서는 한류가 선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불교문화권에 속해 있으며 베트남과 비교해서 정서상으로도 우리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한류는 이미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의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률은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 선호 긍정률은 무려 9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성공적인 진출 전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 중 캄보디아의 한국제품선호도는 1위를 차지하며(76.8%), 베트남은 3위(57.3 %)를 차지하고 있다.

10) 경제적 자유도 순위는 캄보디아(21위), 인도네시아(27위), 베트남(32위), 라오스(35위), 미얀마(40위) 순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법인세율 우대 조치, 수입관세 면제 등 베트남정부의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해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 신규 투자법 및 기업법을 제정하여 2006년 7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신규법 목적은 “외국기업도 기업법에서 정한 모든 종류의 회사를 베트남 기업과 동일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투자환경의 경쟁력 중의 하나도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캄보디아는 1998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래 1994년 투자법(Law on Investment)을 발표했다.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간주되고 있다(이주필·양기식 2008: 83-84). 캄보디아는 2004년 WTO에 가입하였고 한-캄보디아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이 2008년 1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이는 캄보디아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더욱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기회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요한 2009: 214-215).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과 경로를 조성해 주고 있는 위의 정책적 측면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주노동: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은 동남아 사람과 문화의 직접적인 유입에 따라 한국사회에 생겨난 ‘동남아 현상’이다.

2008년 6월 현재 베트남의 이주노동자 수는 44,526명(합법체류 35,281명, 불법체류 9,245명), 인도네시아의 이주노동자 수는 21,512

명(합법체류 17,768명, 불법체류 3,744명)이다(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http://www.immigration.go.kr>).

베트남 노동자 해외이주노동의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는 경제적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1986년 도이머이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촌의 농민들과 지방 소도시 노동자, 빈민들이 해외 이주노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고자 했다. 2007년 기준 아세안국가들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7위(\$836.7)이며¹¹⁾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수원국 리스트(DAC List of Recipient Countries)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수원국을 크게 4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베트남은 기타 저소득국(other LICs)에 속한다.¹²⁾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해외 이주노동의 가장 큰 원인도 경제적 이유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1970년대를 시점으로 자유화 및 개방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외이주노동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내경제가 적당한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외국행 이주노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2005-2008년 평균 실업율은 8.4%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 2007년 기준 아세안국가들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5위(\$1,919.6)이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수원국 리스트(DAC List of Recipient Countries)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태국과 함께 저중소득

11) 2007년 기준 아세안국가들의 1인당 GDP는 싱가포르 \$35,206.1, 브루나이 \$31,076.1, 말레이시아 \$6,880.2, 태국 \$3,740.1, 인도네시아 \$1,919.6, 필리핀 \$1,652.8, 캄보디아 \$598.4, 라오스 \$736.1, 미얀마 \$215.6, 베트남 \$836.7(ASEAN 사무국).

1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수원국 리스트(DAC List of Recipient Countries)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수원국을 크게 4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ASEAN 회원국의 경우 DAC 분류기준에 따라 최빈개도국(LDCs)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기타 저소득국(other LICs)은 베트남, 저중소득국(LMICs)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고중소득국(UMICs)은 말레이시아로 분류된다.

국(LMICs)에 속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에서 경제적 이유는 공통적이지만 기타 저소득국에 속하는 베트남이, 저중소득국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보다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베트남은 1970년대 후반 노동협력 협약을 통해 구 소비에트 블록 국가에 노동자를 송출하기 시작한 이후 노동이주를 공식적인 정부정책의 한 영역으로 삼아왔다. 현재 베트남 이주노동자들 유입경로는 한국정부가 2004년부터 실시하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라는 제도다. 현재 베트남 측에서는 해외노동자센터(OWC)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양국 간의 이주노동자의 송출과 유입을 관리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정해져 있으며 두 기관은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최호립 2009: 248-249).

국가의 공식 제도의 수준에서 한국행 베트남 노동이주는 이와 같이 고용허가제가 관철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는 한국어능력시험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예는 이러한 정책의도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능력검증시험제도가 한국행 노동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데, 이 시험에 대한 과도한 수요에 대처하여 만든 대안으로 실시되는 지방 단위의 “예비시험제도”가 국가의 정책과 한-베 양국 간 외교적인 협약의 의도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종결되면서, 실제적으로 송출업체의 역할이 사라졌지만, 고용허가제 이후에도 과거 송출업체의 역할을 하는 기관과 연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출사기’에 해당하는 관행도 잔존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행정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정한 중개료를 비공식적으로 얻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이주노동 중개업자’라고 할 수도 있다(최호립 2009: 251).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정부와 체결한 고용허가제라는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중에서 고용허가제는 2006년 10월부터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갖고 있는 ‘대리자 시스템’, 다시 말하자면 이해당사자가 직접적인 행위주체가 아니라 매개자와 용역을 사용하는 사회문화적 관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제기되게 만들었다. 대리자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은 부패,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 있어 한국어 능력시험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제도적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고용허가제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운영되는데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 등 정책적 효과를 100% 만족될 시킬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대리적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관행, 사회문화적 조건인데, 이것은 대리자와 고객 사이에 불평등하고, 탈법적인 부패 및 사기를 만드는 부정적 요소를 낳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수십 만 개의 섬으로 구성된 가장 광범위한 다도국가라는 지리적 요인 때문인데,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만큼 인도네시아 국가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최경희 2009: 391).

위와 같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적 요인과 그 운영과정의 문제점은 아주 유사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한국행 이주노동을 선택하는 원인으로 베트남에서 사회적 보편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류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한류는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외경협기금(EDCF) 제공등도 이런 인식에 기여하게 된다. 1987-2009년 3월 사이 동남아 국별 EDCF 지원내역을 보면, 베트남이 6.98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한

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커뮤니티의 규모는 외국인 커뮤니티 중 1위(70,000명)를 차지한다. 한국과의 접촉이 많아짐에 따라서 한국은 더 이상 생소하거나 낯 설은 대상이 아니다.

베트남은 앞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평균 긍정률이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 한국 대중문화 선호 긍정률은 4위(63.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중국, 호주, 인도, 한국 5개국에 대한 호감도 비교에서 한국은 베트남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류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기여하고 있다. 앞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대중문화 선호 긍정률은 40.1%, 5개국에 대한 호감도 비교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의 EDCF 제공액은 베트남에 이어 2위(3.15억 달러)이며 한국인 커뮤니티의 규모도 베트남과 함께 가장 큰 규모(31,000명)다. 이런 점도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베트남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¹³⁾

3. 유학: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유학은 한국과 동남아 사회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동남아 현상’이다. 한국으로 유학 오는 동남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으로, 동남아를 ‘보다 나은 교육현장’으로 인식하고 동남아를

13) 3장 한국동남아연구소 인식도 조사 항목 참조.

향해 가는 한국인의 이동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학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선진국으로의 “의존형” 유출 유학 외에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의 유학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유출 유학 외에도 한국이 해외 유학생이 찾아오는 유입국가로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내의 우수한 교육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잠재적 해외 수요자들을 유입하는 교육수출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한 전략은 2001년을 기점으로 하여 유학생 정책을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말레이시아로 유학 가는 한국의 조기 유학생들과 한국으로 유학 오는 캄보디아 유학생들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¹⁴⁾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의 중요한 유학 유출국인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새로운 조기 유학 대상지로 한국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전국적으로 30개가 넘는 국제학교에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유학 온 5만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외국인 학생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박종현 2007: 118).

말레이시아가 조기유학 대상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영어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치안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이슬람을 신봉하는 말레이인들이 총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가 있어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라는 인식 등을 말레이시아를 조기 유학 대상지로 선택한 이유로 볼 수 있다.¹⁵⁾

14) 이 글에서 주로 조기영어교육을 목표로 한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대학생 유학 보다는 이 경우가 훨씬 더 보편화된 한국학생들의 말레이시아 유학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5) 말레이시아가 자랑하는 대학 교육의 몇 가지 장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높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학비와 생활비가 비교적 싸다는 점이다. 저렴한 학비에 다닐 수 있는 미국, 영국, 호주 계통의 국제학교가 많다. 생활비의 경우 평균 한 달 싱글룸(2인실)에서 한명이 지불하는 금액은 미화 100불 선이다(홍석준 2009: 168).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교육체계의 특징과 장점이 말레이시아가 한국인들의 새로운 조기 유학 대상지로 부상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교육은 명성 있는 교육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중요 산업 중 하나로 인식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뛰어난 품질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과정뿐 아니라 다양한 고등 교육 과정들을 제공한다. 그 근본적인 토대는 영국과 호주의 유명 대학들이 현지에 분교 캠퍼스를 만들고 있는 현재의 경향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및 뉴질랜드의 대학들은 말레이시아 교육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편입 프로그램(twinning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된 외부의 학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홍석준 2009: 168).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에 출입하기 위한 이민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한국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말레이시아를 유학 대상지로 선택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가족들은(학생의 부모, 대학원 과정인 학생의 배우자 및 자녀들) 이민국의 허가 하에 학생들의 유학 기간 전체 동안 학생과 같이 말레이시아에 머물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유학

교육의 질 2. 호주,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3. 영국 대학들에서 보증하고 인정하는 다양한 상의 수여 기회, 국제적인 자격 승인 획득 기회 제공 4. 다른 민족과 종교,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 5.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말레이시아의 지리적 위치 6. 친절한 말레이시아 사람들 7.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지역의 다양성 8. 안전한 사회 환경

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화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어와 동시에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작용하고 있다. 한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학교 중 하나인 세이폴 국제학교(SIS: Sayfol International School)가 현지 한국 신문에 게재한 다음과 같은 광고를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홍석준 2009: 164)

“말레이시아는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어는 10년 뒤에는 영어보다 더 중요한 필수언어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에 특별전형에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유리한 성적입니다...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5개 반으로 나눠 배정합니다. 중급반 이상이 되면 만다린의 토플이라고 할 수 있는 HSK (중국어 수평고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 갈 때 HSK 증서는 매우 유리한 외국인 인증서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몇 년을 배운다면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유학의 경로는 친지나 지인들의 소개 또는 회사 동료의 권유, 인터넷 정보, 말레이시아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들 수 있겠다.

현재 한국에서 수학중인 캄보디아 유학생들은 전체 134명(2008년 교육부 통계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그 중에서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이 86명이다(학사과정생 26명, 석사 52명, 그리고 박사 8명).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한국에 파견하는 베트남과 비교해 보면 아직 수적으로는 미약하다.¹⁶⁾

16) 베트남 유학생은 1,787명(학위과정 1,411명, 어학연수 등 376명)으로 1위며, 말레이시아 501명(학위과정 361명, 어학연수 등 140명), 필리핀 353명 (학위과정 265명, 어학연수 등 88명), 인도네시아 325명(학위과정 256명, 어학연수 등 69명), 태국 241명(학위과정 96명, 어학연수 등 145명), 캄보디아 순이다.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석·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내에서는 장학금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석·박사 생의 수가 학사 졸업생 수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한다. 자비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은 장학금 획득이 가능한 해외유학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유학지의 선택에서 장학금의 수혜여부가 매우 민감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조영희 2009: 415). 캄보디아 유학생들의 유학경로는 주로 지도교수로부터의 추천에 의한 경우가 많다.

사회적 측면에서 캄보디아 유학생들의 한국에 유입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고등교육의 열악한 현실이 유학생 유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캄보디아 내에서 고등교육의 기반이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독립 이후 격변의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전반적인 교육의 구조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고등교육의 발전추세는 1970년대 중반 폴 포트 정권을 거치면서 완전히 말살되었고, 1979년에 폴 포트 정부가 붕괴되었을 당시 캄보디아 내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의 수가 300명 가량에 불과했다(조영희 2009: 414). 1980년대 후반 경제개방이 점차 이루어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로 전환하게 된 캄보디아는 세계경제 체제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교육받은 지식인 계층이 시급히 필요해졌다.

캄보디아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한국정부의 정책적 측면을 살펴보면,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수립해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IT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특화된 유학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을 통하여 외국정부 파견 국비유학생 유치

확대, 외국정부와의 교육교류 약정체결 등을 통해 유학생 교류기반 구축,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등 국내·외 대학 간 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¹⁷⁾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되는 문화적 요인으로는 캄보디아 내 한류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한국기업, 그리고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문화 등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하게 된다는 개연성을 예상할 수 있겠다. 특히 2003년 이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관광객 수 1위),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앞의 한국동남아연구소 인식도 조사에서 캄보디아는 동남아 10개국 중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전 항목에서 긍정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의 동남아 유학과 동남아 사람들의 한국유학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요인은 경제적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보다 사회·문화적, 정책적 측면의 유인요인이 훨씬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4. 은퇴이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은퇴이주는 한국인이 동남아로 이동하거나, 상호 접촉에 따라 형

17) 2004년 11월 「Study Korea Project」 수립 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율 목표로 하였으나, 동 목표를 조기('07년도)에 달성(49,270명) 함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새로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유학생 유치목표 재설계 이외에도 「Study Korea Project」 시행 과정상, 성과와 문제점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을 수립했다.

성된 동남아에 대한 인식에 의해 생겨난 ‘동남아 현상’이다.

동남아 지역은 비교적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 생활비, 의료시스템, 풍속과 문화가 은퇴자들의 실정에 부합하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청정하며, 골프를 포함한 노년의 레저 활동에 적합한 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가장 인기 있는 은퇴이주 국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을 들 수 있다.

한국인의 동남아로의 은퇴이민자는 1990년대 말부터 크게 증가했다. 필리핀은 국가적 우선사업으로 은퇴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2006년까지 은퇴비자 소지자는 5,183명에 이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06년까지 총 8,700명(동반가족 제외)에게 은퇴비자가 발급되었다(Mollman 2007). 말레이시아는 ‘제2의 홈 프로그램’(My Second Home Program)을 통해 은퇴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 유치정책과 우리사회에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는 동남아로의 은퇴이주 현상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 은퇴자들을 유인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 요인인 저렴한 생활비를 들 수 있다. 2006년도에 발표된 생활비 비교연구에 따르면, 세계 144개 도시 중에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는 114위, 태국의 방콕은 127위, 필리핀 마닐라는 141위를 나타냈으며, 서울은 1위인 모스크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Mollman 2007). 동일한 비용으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는 대도시의 안락함과 각종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주한 많은 사람들이 이주 이전에 생각했던 생활비와 실제 현지에서 지출 되는 생활비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당혹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 주택임대

는 주로 월세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한국의 그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대도시를 벗어나 위성도시라든가 지방도시의 주택임대 가격은 1/2이나 1/3 정도로 저렴하기는 하지만, 최근 한국인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 최근 3~4년 사이에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현지에서 오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는 한국의 언론에서 필리핀에 가면 월 200만원으로 황제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보도에 현지 한국인들이 분통을 터뜨린다고 했다(김동엽 2009: 128).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현지에서 산다는 것은 현지사회의 상류층의 활동영역에서 그들의 생활패턴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패턴은 높은 수준의 생활비 지출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위의 은퇴이주를 유인하는 경제적 요인을 양국별로 비교하면 필리핀이 말레이시아 보다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¹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 사회의 문화적 친화성이 은퇴이주의 유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필리핀인들이 온순하고 타민족에게 호의적이라는 점,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정신(hiya)이 교육을 통해 심화되어 있으며, 한번 은혜를 입으면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식(우땅 나 루읍, utang na loob, 내면의 부채의식) 또한 강한 편이라서 이런 문화적 가치의 측면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은퇴이주를 유인하는 경제외적 조건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⁹⁾

18)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 달 생활비는 ... 필리핀이 200만원, 태국이 200~22만원, 말레이시아는 220~250만원대”라고 설명하고 있다(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이코노미스트 취재팀 2006: 19).

19)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반대의 상황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그것이다. 방향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문화와 과정을 중시하는 필리핀 문화 간에는 상충이 발생한다. 또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며,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로 구성된 복합사회(plural society)이다. 우리나라와는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보 이기는 하지만 말레이계의 이슬람 문화와 화교계의 유교문화가 공 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 말레이시아 이슬람의 보수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도 일치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5년 7월 4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대통령령 1037’을 발표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은퇴 이민 제도를 정비했으며 은퇴업무를 담당하는 필리핀 은퇴청(PRA: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이 설립돼 본격적인 은퇴 이민 업무를 시작했다. 35세 이상 49세 미만 신청자는 7만5,000달러를, 50세 이상 신청자는 5만 달러를 은퇴청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셋째 부양가족부터는 1만5000달러가 필요하다. 필리핀은 2015년까지 총 1백만 명의 은퇴이주자를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에는 은퇴비자 신청요건을 대폭 하향조정 하기도 했다 (Mollman 2007).

말레이시아는 2003년 말부터 ‘제2의 홈 프로그램’(My Second Home Program)이라는 이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50세 이상일 경우 15만 링깃(Ringgit Malaysia, 약 4,500만원)을 말레이시아 은행에 예치하거나 월 1만 링깃(300만원) 이상 고정수입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제2의 홈 프로그램’을 신청해 최종 입국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대략 2~5개월이 걸린다. 50세 미만의 경우는 7만5,000달러를 고정 예치해야 한다. 고정 예치금이 없을 경우는 월 2,500달러 이상의 고정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남의 일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행동이나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들의 태도 등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망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현지인과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현지인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언어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따라서 교민들하고만 서로 접촉하고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동엽 2009: 129).

증명하면 된다. 5년짜리 거주비자가 주어지며, 이 비자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이코노미스트 취재팀 2006: 98-103). 이런 은퇴이주의 주요 경로는 해외이주 알선업체나 현지 거주 친지 혹은 선교사(필리핀의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은퇴이주는 아직까지 보편화된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근래 은퇴비자를 취득하는 숫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은퇴생활을 위한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은퇴를 고려할 정도의 경제적 혹은 사회문화적 여유가 보편화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은퇴이주라는 명목 하에 필리핀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의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의 약 90%는 실질적인 은퇴인구라고 보기 힘들며, 한국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생계형 이주자들이다. 나머지 10% 중에서도 약 9% 가량은 여가나 기타 다양한 이유에서 투자와 수익사업에 종사한다. 순수한 휴식을 위한 은퇴인구는 약 1%정도로, 한국에 근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라고 한다(김동엽 2009: 123-124). 한국인의 경우 은퇴비자 신청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자녀들의 유학과 연계하여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²⁰⁾ 이런 현상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인 삶이 어렵거나 조기교육을 위해서 은퇴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0) 필리핀의 경우 다수의 동반자를 수반하는 경우는 한국과 중국이 특히 두드러진다. 국적별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자 수에 따르면 동반인수는 중국이 457명으로 1위 한국이 423명으로 2위며, 3위 미국은 30명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 은퇴비자 취득자들이 은퇴 이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말해 준다 (Newsletter of the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09-11/2008: 8).

V. 요약과 전망

지금까지 사람의 이동으로 범주화한 네 가지 주제인 이주노동, 중소기업투자, 유학, 은퇴이주라는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을 동남아 내부의 맥락에서 그 근원과 경로를 주제별,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이런 분석을 위해서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의 거시적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구조적 요인-역사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교류적 요인, 사회인식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았다. 구조적 요인은 한국과 동남아 사이의 연결구조를 형성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돼 ‘동남아 현상’의 개연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구조적 요인 중 역사적 요인은 동남아 국가와 한국사이의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역사적 요인의 중요성을 이 글의 연구대상 국가별로 비교하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인식적 요인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한류와 동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각종 경제적 지원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동남아 현상’의 출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 현상’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개의 동남아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동남아 내부 맥락에서 미시적 분석(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도 시도했다. 개별국가 비교분석은 ‘동남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양상들에 대해서 동남아 개별국가에 대한 차별적 인식보다는 모호한 전체로서 동남아를 상상하는 데서 오는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 분석결과 네 가지 주제 모두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사회·문화적 요인인 “한류” 라는 변수가 동남아 현상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투자, 이주노동, 한국

으로의 유학 등에서 특히 그러했다. 한류는 ‘동남아 현상’의 동남아적 근원은 아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되고 있다.

동남아 현상들의 직접적인 경로는 당연히 주제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경로의 확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환경요인들로는 해외투자·무역, 인적교류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인 정책적 요인을 꼽을 수 있겠다. 이 중 정책적 요인은 투자 인센티브 제도, 고용허가제, 유학정책과 은퇴이주정책이 해당된다.

미시적 분석결과 대상 국가별로 요인별(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상대적 차이점이 나타났다. 중소기업투자(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제적 자유도는 캄보디아가 베트남보다 우위에 있으며 사회·문화적 요인인 한류는 베트남에서 그 역사적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지만 한류 긍정률(대중문화 선호도, 한국제품 선호도)은 불교문화권에 속한 캄보디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요인은 국가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인도네시아보다 베트남에서 그 상대적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한류의 영향력은 인도네시아보다 베트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동남아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유학(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경우 한국보다 말레이시아에서 사회·문화적, 정책적 측면의 유인요인이 훨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은퇴이주(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요인은 말레이시아보다 필리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 속 ‘동남아 현상’과 관련된 발전 추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동남아 현상’은 한국과 동남아 사이에 사회적 연결구조가 강화(무역과 투자량의 증가, 인적교류의 확대)될수록 더욱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주제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네 가지 주제의 '동남아현상'에 대한 인식은 주로 이주노동자나 중소기업투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유학과 은퇴이주는 가까운 장래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조기유학 붐과 동남아 국가 출신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동남아 현상으로서의 유학은 앞으로 훨씬 더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동남아 은퇴이주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방편이나 자녀들의 유학을 위한 편의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은퇴인구가 본격적으로 배출될 시점에는 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둘째, '동남아 현상' 주제의 다양화는 기존 '동남아 현상'의 내용과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뿐 아니라 동남아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전환하게 만들 것이다. 기존에 동남아 출신 유입인구의 이미지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 등과 같은 우리 사회 내 사회적 약자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남아 출신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한국 내 동남아 사람과 문화에 관한 새로운 이미지와 태도가 형성되고 있다. 유학생은 출신국 내에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는 사회적 계층과 문화적 기반이 차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셋째, '동남아 현상'은 한류의 확대와 비례해서 발전될 것이다. '동남아 현상'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생겨난 배경과 원인의 많은 부분은 한류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진출, 한국으로의 동남아 이주노동자의 증가, 동남아 학생들의 한국유학 등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류의 발전은 '동남아 현상'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주제어: 한국 속 동남아현상, 사람의 이동, 동남아적 맥락, 이주노동, 중소기업투자, 유학, 은퇴이주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2008. 『Study Korea Project 발전 방안』.
- 권기철 · 김홍구 · 김희재. 2005. 『동아시아의 이주노동자: 현실과 정책』. 부산외국어대학.
- 김동엽. 2009.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와 전망: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국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기획 국제학술대회. 경남대 남명학관 남명홀.
- 김홍구. 2009. “한국 속 동남아 현상의 발생배경과 의미.” 한국 태국 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대회. 부산외대 국제회의실(2009년 7월 3일).
- 대한무역투자공사, 2005, 『베트남 투자전략: 해외투자 유망지역을 가다』 제3편.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8.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 ASEAN+3와 EAS의 관계정립 및 우리의 대응 방안』. 2008년도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 박배균.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역사지리학회지』 10(4): 800-823.
- 박종현. 2007. 『이슬람 경제의 새로운 메카 말레이시아』, 미래에셋 글로벌경제총서 05, 서울: 도서출판 김&정.
-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 국민 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_____.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 _____. 2007. “베트남 李 왕조의 후손 李龍祥의 行蹟”. 『한국 베트남 관계사 국제심포지엄』. 하노이 대우 호텔.
- 이경찬. 1998. “동방정책.” 소병국 외. 1988. 『말레이시아-비전 2020 을 지향하는 동방정책의 나라』. 한국외대 출판부.
- 외교통상부. 2009. 『ASEAN 개황』.
- 이요한. 2009. “한국 중소기업의 캄보디아 진출동기와 경험.” 한국 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기획 국제학술대회, 경남대 남명학관 남명홀.
- 이주필·양기식. 2008. 『기회의 나라: 캄보디아 투자전략』.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 189-219.
- 이재현. 2009. “한-아세안 관계 개관: 발전과 현황.” 한-아세안 관계 현황과 전망 워크숍. 외교안보연구원 2층 국제회의실(2009. 4. 30).
- 조영희. 2009. “한국 내 동남아 유학생과 캄보디아의 유출유학.” 한국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기획 국제학술대회, 경남대 남명학관 남명홀.
- 조흥국. 2004. “동아시아 교류협력의 역사적 고찰” 『아시아연구』. 7:2.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이코노미스트 취재팀. 2006. 『2억으로 즐기는 인생 2막』. 서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 최경희. 2009. “한국행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의 근원과 경로에 관한

- 연구.” 한국동남아 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기획 국제학술대회, 경남대 남명학관 남명홀.
- 최병욱. 2001. “17세기 제주도민들이 본 호이 안(Hoi An 會安)과 그 주변.” 『베트남 연구』 2.
- _____. 2008. “이수광의 베트남, 1597-1598.” 『한국 베트남 관계사 국제 심포지엄』. 동북아 역사재단.
- 최호림. 2009. “한국행 베트남 노동이주의 근원과 경로: 이주의 문화.” 한국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기획 국제학술대회, 경남대 남명학관 남명홀.
- 한국노동재단. 2005. 『고용허가제 1년, 외국인력 정책 및 취업교육 평가와 개선방향』. 국제노동재단.
- 한국동남아연구소. 2010. 『동남아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서울: 명인문화사
- 홍석준. 2009. “새로운 조기유학 대상지로서의 말레이시아의 흡인 요인과 한국 어머니들의 사회적 욕망의 재현.” 한국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기획 국제학술대회, 경남대 남명학관 남명홀.
- Abella, M. 2003. “Driving forces of labour migration in Asia.” *World Migration 2003: Managing Migration Challenges and Responses for People on the Move*. Geneva: IOM. *Asian Development Bank Outlook*, 2009
- Bennett Jonathan 2009. "The Development of Private Tourism Business Activity in the Transitional Vietnamese Economy," in Michael Hitchcock, Victor T King, Michael Parnwell eds. 2009, *Tourism in Southeast Asia: Challenges and New Directions*. Singapore: ISEAS.
- Castles, Stephen, and Miller, Mark J. 1993. *The Age of Migration:*

-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 Dang, Nguyen Anh. 2000. "Emigration and Emigration Pressures in a Transitional Viet Nam" APEC/JETRO Conference Proceedings. Chiba: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es.
- _____. 2008. "Labour Migration from Viet Nam: Issues of Policy and Practice." *ILO Asian Regional Programme on Governance of Migration Working Paper No.4*
- Jansen, Clifford J. 1970. "Migration: A Sociological Problem." in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Migration*, edited by Clifford J. Jansen. Oxford: Pergamon Press.
- Lee, Everett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 Mollman, Steve. 2007. "Low Cost of Living Draws, Retirees to Southeast Asia." from the WSJ Real Estate Archives, <http://www.realestatejournal.com/>.
- Portes, Alejandro, and Walton, John. 1981. *Labor, Clas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 Rogers, A. 1967. "A Regression Analysis of interregional Migration in Californi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9: 262-267
- Sassen, Saskia.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and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Foreign Investment: A Neglected Variable." in *The*

Immigration Reader: America in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edited by David Jacobson.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Website)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exim.c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http://www.immigration.go.kr>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기타)

경향신문 2009/03/16, 국민일보 2008/02/03, Weeklychosun 2008/01/29

(2011. 04. 28 투고; 2011. 05. 20 심사; 2011.06. 16 게재확정)

<Abstract>

The Origin and Diffusion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n Korea:
Focusing on Human Movement

Kim Hong-koo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cently, Southeast Asian people, its food, natural sceneries and so on have been increasingly exposed to Korean people through mass media and multi-cultural events. At the same time, Koreans can frequently encounter Southeast Asians in their everyday lives. Thus, specific images and discourses of Southeast Asia has been established in our society, which creates a new social trend called 'Southeast Asia phenomena'.

In short, 'Southeast Asia phenomena' means a totality of Korean people's experience of Southeast Asian and their perception on the region. On the one hand, 'Southeast Asia phenomena' is a result of inflow of Southeast Asians and their culture into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consequence of Korean people's understanding of Southeast Asia from their trip to Southeast Asia or from their interactions with Southeast Asian peopl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origin and diffusion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n Korea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focusing on 4

topics, that is, migrant workers, overseas investments, retirement migration, study-abroad categorized as human movement. This article is also about a country-by-country comparative analysis both at the macro level and the micro level.

At the macro level, overseas investments and trade, human exchanges, positive perception to Koreans which considered to be the structural causes become a strong mechanism playing a important bridge role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So these create the high probability of the emergence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At the micro level which is more direct causes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the economic cause is the most important common cause for 4 Southeast Asian Phenomena. Additionally, Korean wave is also remarkable common cause creating 'Southeast Asian Phenomena' even it is not the origin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The diffusion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s different by the topics and the elements contributing to create the favorable situation for the diffusion are not only overseas investments and trade, human exchanges at the macro level but also policy elements at the micro level.

The relative differences of the causes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n the country-by-country analysis are found. Regarding overseas investments in Vietnam and Cambodia, the economic degree of freedom in Cambodia is higher than in Vietnam. Even Korean Wave has had the longer history in Vietnam, but the favorable perspectives on Korean Wave are stronger in Cambodia. For migrant workers from Vietnam and Indonesia, the economic causes in Vietnam are more significant than in Indonesia. The impact of Korean Wave is stronger in Vietnam than in Indonesia. In case of study-abroad, the social-cultural elements and

policy elements are more diverse in Malaysia than in Korea. For the Korean retirees who immigrate to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the economic causes in the Philippines is more significant in Malaysia.

Key Words: Southeast Asia Phenomena, Migrant Workers, Overseas Investment, Retirement Migration, Study-Abroad, Korean Wave

